

-(으)ㄴ까 봐

~할까 봐 — 걱정되어서, 혹시 ~할까 싶어

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 걱정을 나타냅니다. 형태는 -(으)ㄴ까 하다는 것과 거의 같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ㄴ까 봐	오다 → 올까 봐
자음으로 끝남	-을까 봐	늦다 → 늦을까 봐
ㄹ로 끝남	-까 봐	만들다 → 만들까 봐
긴 형태	-(으)ㄴ까 봐서	늦을까 봐서
과거에 대한 걱정	-았/었을까 봐	잘못했을까 봐
다른 뜻	-(으)ㄴ까 하다	갈까 해요 — 갈 생각이다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 방법은 -(으)ㄴ까요?와 똑같으며 ㄴ 어간은 짧은 형태가 됩니다. 만
들다는 만들까 봐.가 됩니다. 더 긴 형태인 -(으)ㄴ까 봐서도 똑같이 맞습
니다.

앞 절은 걱정한 일이고, 뒤 절은 그래서 취한 대비책: 늦을까 봐 택시를 탔
어요.입니다. 이 구조는 ‘걱정 → 행동’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

걱정하는 일은 거의 언제나 달갑지 않은 일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
니다.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면 과거를 어미 안에 넣습니다: 잘
못했을까 봐 걱정이에요.

-(으)ㄴ까 하다는 차이는 일찍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갈까 해
요는 갈 생각이라는 뜻이고, 갈까 봐는 누군가가 갈까 봐 걱정된다는 뜻
입니다.

■ 예문

- 1 늦을까 봐 택시를 탔어요.
- 2 비가 올까 봐 우산을 가져왔어요.
- 3 아이가 낯까 봐 조용히 들어왔어요.
- 4 잊어버릴까 봐 메모해 뒀어요.
- 5 모자랄까 봐 좀 더 만들었어요.
- 6 제가 실수했을까 봐 계속 걱정돼요.

■ 비교

-(으)ㄴ까 하다
한 음절 차이지만 뜻은 무관합니다. 하다는 자신의 막연한 계획을, 봐는
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걱정을 나타냅니다.
갈까 해요. (갈 생각이다) / 갈까 봐 걱정이에요. (그 사람이 갈까 봐 걱정이
다)

-(으)ㄴ 것 같아서
것 같아서는 단순한 예상을 이유로 들고, -(으)ㄴ까 봐는 그 일이 일어나
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더합니다.
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챙겼어요. (비가 올 거라고 예상했다) / 비가 올까
봐 챙겼어요. (비가 올까 봐 걱정했다)

-지 않을까 봐
걱정하는 일을 부정하면 반대의 걱정이 되는데, 이중 부정처럼 보여서
학습자가 자주 헷갈립니다.
늦을까 봐 (늦을까 봐 걱정) / 안 올까 봐 (그 사람이 안 올까 봐 걱정)

■ 주의

- ✗ 주말에 여행을 갈까 봐요.
- 주말에 여행을 갈까 해요.
고려 중인 계획이라면 하다는 씁니다. 봐를 쓰면 누군가가 갈까 봐 걱정한다는
뜻이 됩니다.
- ✗ 모자랄까 봐 좀 더 만들을까 봐요.
- 모자랄까 봐 좀 더 만들었어요.
뒤 절에는 실제로 취한 대비책을 씁니다. 또 -(으)ㄴ까 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
반 서술어를 씁니다.
- ✗ 제가 실수할까 봐 계속 걱정돼요. — 이미 한 일에 대해 (×)
- 제가 실수했을까 봐 계속 걱정돼요.
이미 끝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면 과거를 어미 안에 넣습니다.